



民草의 그림이 된 시대 관통한 寓話

남정에 민화작가... 상상과 환상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실용적 작품세계

격 랑의 파고를 헤치며 전진한다. 팍 깨문 어금니는 결의에 차 있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그들이 아니다. 느낌이나 유약한 자가 아니라 비와 거센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불타오르는 눈빛만이 번쩍일 뿐이다.

경쟁자에서 동행자로 결의를 다진 이들이 내건 깃발에는 이런 글귀가 펼쳐졌다. 독당일면(獨當一面), '혼자 한 방면의 중책을 맡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신묘년 새해를 열고 있는 것이다.

거북이는 물, 토끼는 땅,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이 둘의 선택은 드라마틱했는데 가장 큰 영향은 생선 때문이었다. 비교우

위는 더 이상 의미를 잃고 더 강력한 힘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토끼와 거북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지성(知性)의 보고(寶庫)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명언이었다. "진정한 발견의 향배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상식파괴자, 그레고리 번스 지음, 김정미 옮김)

여러 화가들의 그림들이 프루스트에게 영향을 주듯 토끼와 거북이 역시 프루스트의 창조적 지성에 영감을 얻어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의식을 깨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테면 거북이의 느낌을 저력으로, 왜소한 토끼의 신체를 극복할 수 있는 속도를 결

합한 것이다. 거의 동일한 속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결정 이후 그 둘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이전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해체했다. 그리고 곧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토끼의 명석한 두뇌와 거북이의 급소를 찌르는 끈질긴 분석력을 자신들이 먼저 확인한 정도였으니까.

새로운 개념과 철학이 녹아든 화폭

거북이와 토끼가 주인공이 된 민화는 꿈을 그리는 그림이다. 부부의 금슬을 기원하고 다산과 오복을 갈구하며 무병장수를



심장생도, 42x160x10cm 한지에 먹, 수간본체, 니금, 2010(편위). 새해 소망, 34.5x27cm 한지에 먹, 수간본체, 2010.

꿈꾸고 부귀공명을 희망하는 민화를 일컬어 '실용적인 그림'이라 하는 대목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생활 주변 모든 물상을 맡겼 다루고 비현실적 세계의 온갖 상상까지 무한 소재로 삼는 소재의 개방성은 어느 그림과 달리 환상성을 갖는다."(작가노트)

또 그녀의 전통에서 머물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도 결코 가볍지 않다. "심장생의 소재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소나무와 거북만을 배치하거나 모란과 소나무만을 분할한 두 폭짜리 심장생도는 그의 진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서양회화에서는 꿈꿀 수 없는 장점이다."(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이렇듯 민화는 내일을 그리면서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존재한다. 그 세계는 오늘의 모습이어야 하고, 있어야 할 내일의 모습이어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참 배운의 바탕들이 어우러져 토끼와 거북이는 앉아서 자료를 보는 것의 평범함에서 펼쳐 일어나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직접 그 패러다임의 물결에 몸을 실은 것이다. "세계사의 흐름이 단순히 성능 좋은 기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합하는 새로운 개념과 철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는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사기의 리더십, 김영수 지음)

오늘은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러 동해 바다로 길을 나섰다. 토끼를 등에 업고 빨빨 따름을 흘리며 각오를 다지는 거북이가 신묘년 새해 아침, 사마

천의 사기 이사열전(李斯列傳)의 한 대목을 읊었다. '태산불양토양(泰山不讓土壤)'이라고 하니 토끼가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라고 응수했다. 풀이인즉, 태산은 한 줌의 흙을 사양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높은 것이고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기에 그렇게 깊은 것이다. ■

권동철 문화전문 기자 kdc@asiae.co.kr

남정에 작가와의 대화

익살맞고 천진스러운 희망의 리얼리티 추구

우리의 민화를 독창적인 조형언어로 풀어내는 남정에 작가의 작업실은 '꿈'으로 가득했다. 한국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는 익살스럽고 소박하며 뛰어난 해학 미(美)와 아름다운 채색의 그림 때문이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曹溪寺) 인근 작가의 작업실은 도심이지만 조용한 느낌이 들어 작가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작가는 '민화의 조형성은 회화 표현 방법에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천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희망의 리얼리티를 그려내는 것이 작가로서 과제'라고 말했다. 본지에 신묘년 새해 토끼작품 첫 선을 보인 그녀는 "토끼가 얼마나 우리 문화의 중요한 모티프인가를 시간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며 "토끼의 속도와 빠른 판단력 그리고 해맑은 순수의 눈동자를 통해 신묘년에도 더욱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고 말했다.

전통을 현대에 익혀내고 현대를 전통에 공수해 담아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의 작품세계를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전통을 빌려 현대 인간의 꿈을 선포하고 현대 인간의 욕망을 전통 속에 구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평했다. 민화의 파격적 구성이나 아름다운 색채와 익살스럽고 소박한 모습은 한국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유의 자유스러움과 독특한 천진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개성은 문화 콘텐츠가 중시되는 오늘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남정에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 동양화전공 졸업했으며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민화는 일상에서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로 또한 민족의 노래가 되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삶과 희망의 원천이 된다. 갤러리 아이 기획초대전, 남정에 민화(전인사아트센터) 등 개인전을 7회 가졌으며 2010 K.P.F.J Fine Art Festival(필리핀 마닐라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